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 업체 참여 보장하라”

군산시 협의회 회원들 기자회견서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 전면 보완 촉구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 추진을 두고 지역 업체의 참여를 현실화하라는 여론이 뜨겁다.

이와 관련 24일 군산지역 나기학, 문승우, 조동용 전북도위원과 전기공사협회 군산시 협의회 회원들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 모집공고 과정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군산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 업체들은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하고 전라북도 소재의 아주 소수 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군산지역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17일 군산지역 도청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이후 새만금태양광사업 민간협의회에서 지역 업체 참여방안에 대해 의제를 선택했고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개선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 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원칙론적인 얘기만 일삼고 대기업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공사협회 군산시 협의회 회원들도 정부의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의 핵심 가치는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인 군산시의 경제 위기 극복과 담보상태에 빠진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추진이라며 지금의 대기업과 발전사가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지역 업체 참여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도의원들과 전기공사협회 회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무사안일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전면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보완하고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및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 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자본비율 20%, 신용



24일 군산지역 나기학, 문승우, 조동용 전북도위원과 전기공사협회 군산시 협의회 회원들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 및 매출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해 지역중소기업의 참여조건을 보장함과 동시에 태양광사업이 군산 고용위기 극복 및 전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전면 보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5월 2

일 새만금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같은 달 28일 변경공고를 냈고 오는 7월 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관들을 공모할 예정이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보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소화기 증상 있으면 진료 받아야

군산에서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진드기 매개감염병)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보건소(소장 전형태)에 따르면 군산에 거주하는 A(54)씨가 지난 20일 발열 등의 증상으로 도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고 21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 22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38℃~40℃도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며 치명률이 10%~40%에 달한다.

특히 현재까지 백신이 없어 증상을 경감시키는 대증요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 시 긴 옷을 착용하고 귀가하면 즉시 샤워한 뒤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입었던 옷은 일반 세탁물과 분리해 세탁해야 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진드기 기피제 및 농약용 토시 지급,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교육과 읍면동에서 통장 교육 및 마을방송을 통해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4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축산악취 저감 검증된 업체선정 주문

정현을 시장, 환경·시민건강과 관련된 사업추진 중요성 피력

정현을 익산시장이 24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업체 우수사례 발굴 위주로 칭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축산악취 저감과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 등 환경과 시민건강과 관련된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먼저 정 시장은 “지역업체 우선계약이나 친절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인식이 초반과는 많이 달라졌다”면서 “지역업체 계약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칭찬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친절행정도 서로 응원하면서 기운을 북돋우며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축산악취의 확실한 저감을 위해서

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악취저감장치 및 저감제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 여름철 축산악취 저감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어릴 적 동네마다 뿌리고 다니던 것이 연막소독인데 이것은 경우에 희석한 소독제여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있지만 시민들 건강에는 해롭다”고 말하며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익산시 보건소에서 위생해충 방제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기존 연막소독 방식에서 친환경 연무소독 방식으로

변경해 실시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덧붙여 “하지만 기존 연막소독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 시민들은 소독을 아예 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연무소독은 경우대신 물이나 확산제(식물성 기름)로 희석해 연기와 냄새가 없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시민건강에도 기여한다.

이 밖에도 정현을 시장은 국회에서 추경 관련 일정이 재개된 만큼 국가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직원들의 휴가계획을 사전에 미리 조사해 개인휴식 보장은 물론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 시민참여예산학교 개최

시민이 만드는 자치도시 군산시가 자립도시의 완성을 위해 지역민들의 행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4시 군산시청 2층 대강당에서 참여예산 시민들로 구성된 지역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 예산현황 및 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사업제안 및 시민 참여 방법 등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약 600여명의 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2017년과 2018년 행안부 주관 참여예산제도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은평구의 우수사례 및 주민참여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454-231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업무협약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강민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중앙부처 협의의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시는 시민참여와 인허가 행정지원을 제공하며, 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법인 설립, 관련 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골짜다.

협약기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본 구상은 고군산군도 지역에 케이블카를 시(시민)와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중점 및 노선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금후 시행예정인 기초용역을 통해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도심 속 자연생태놀이터 조성

행정절차 거쳐 올해 11월 준공

익산영등시민공원이 올해 하반기까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도심 속 자연생태놀이터로 탈바꿈된다.

24일 익산시(시장 정현을)에 따르면 영등시민공원이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이 같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9천만 원을 포함해 시비 2억1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투입된다.


시는 그 동안 시설계용역을 추진

했고 오는 7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해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놀이터 주변 도심 숲속 자연재료를 활용한 조합놀이대와 미끄럼틀, 구름지, 풍화놀이 등의 친환경 체험형 놀이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익산시민아카데미 ‘노리노리담’ 등 지역주민들과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5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엄마들과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협의했다. /익산=장원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